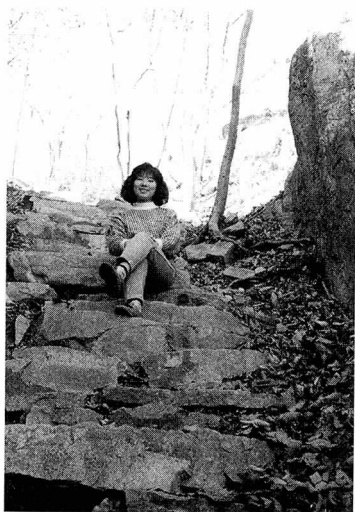


Essay

산으로 가는 길

글 · 이인숙



대자연의 변화와 숨결처럼
아름답고 위대한 언어가 있으
라! 잠시 답답하고 찌든 일상
에서 벗어나 정처없이 떠나는
것처럼 멋진 일이 있으랴!

우리는 아무런 제약없는 자
연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윈
래의 참모습을 만나게 된다.
마치 자신의 비뚤어진 것을
냉정히 보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에 시달리다 보면 때론 중요한 것을 잃고 산다. 그러기에
가끔 산을 찾곤 한다.

어떨 때는 홀로 밤기차를 타고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속
에서 자신을 발견하려고도 한다. 어찌 보면 이런 수작(?)은
현실에 대한 허기짐 같은 것을 마냥 맹목적인 방법으로 푸
는 것이라 하겠으나 콧노래 부르고 가슴 벅찬 행복함을 실
감한다.

어느 가을, 제법 벼르던 출발이었다. 처음 듣던 주왕산을

찾기로 한 것은 단풍의 강렬한 유혹 때문이었다. 말로만 들어왔던 산정무환의 기억과 떠나는 일의 설렘이 나를 더욱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였다. 1박2일, 경북 청송, 민박, 기차 이것이 준비한 모든 것이었다. ‘그냥 떠나는 것이지 이것저것 생각할 게 뭐 있어’ 하고 성큼 발을 내디뎠다.

아침 일찍 출발했으나 대구, 안동, 청송까지의 거리는 한나절을 금방 잡아먹어 버렸다. 민박을 용케 구하고 밖으로 나오니 바쁜 가을 해는 서산마루에서 누엇누엇 기울고 있었다.

내륙지방 찬 밤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든다. 긴장과 피곤으로 지쳐 있던 온 몸의 기운이 금세 날아갈 듯이 가뿐해진다. 아! 여지껏 무얼하다 이제야 살아가는 소중함을 깨닫는가? 벼 그루터기만 남아 있는 논바닥의 흙내음도 싱그러웠다.

집 근처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유독 이곳에서 색다른 느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예라, 모르겠다. 이유가 무슨 필요있나. 여기 대자연에서 그냥 호흡하고 그 숨결을 무작정 느끼기만 하면 족한거지.

옛말에 ‘인자요산(仁者樂山)이요 지자요수(知者樂水)’란 말이 있다. 산으로 가는 길은 바로 어질게 사는 길이란 뜻일 게다. 어질다는 건 착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산이 지닌 덕성과도 같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어둠 속으로 내일 오르기로 한 주왕산이 우뚝 다가서 있다.

안개가 온 산을 뒤덮은 아침이었다. 일찍이 이런 안개 천지를 만난 적이 없어 보기만 해도 신비로웠다. 아니 황홀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았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 허공에 부영게 깔려 있는 물안개를 온몸으로 밀어붙이니 그 사이로 다양각색의 빛깔들이 한꺼번에 드러난다.

산은 어디다 이 많은 안개와 빛깔들을 준비해 뒀다가 오늘

일시에 쏟아 붓는지 자못 외경스럽기만 하다. 또 단풍이 이렇게 찬란하고 요염할 줄이야!

곧게 뻗은 산길을 쉽게 오를 수가 없다. 작은 돌 틈에 앙증맞게 서 있는 것이, 길옆으로 알록달록 이름도 쉬이 드러내지 않는 것들이, 한 굽이 돌 때마다 우뚝 다가서는 기암괴석 그 허리춤으로 흘러내리는 안개 너머로 잎들이 자꾸만 현란하게 자극한다.

어찌 감히 봄에 핀 꽃들에 비할 수가 있으랴! 산은 전체가 단풍의 잔치로 들떠 있는 듯 우러러 볼수록 찬란하기만 하다. 웅장하고 세련되고 그래서 시원스럽기조차 하다.

제1폭포, 제2폭포를 지나 다시 계곡으로 이어진다. 밤새 잎새들의 간지럼 타고 말없이 흘러내린 이슬 방울이 여기 다 모인 곳이다. 수정보다 더 차갑고 더 투명한 샘, 한참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어느새 가슴은 얼음처럼 맑고 단단하게 야물어져 있었다. 풀풀거리던 먼지들도 다 털려 나가고 이제는 머리칼 빗어 넘기며 산을 내려오는 일만 남았다.

해발 700m 정도의 나즈막한 산길을 단숨에 내려와 버렸다. 그토록 열렬하던 안개는 어디로 숨었는가. 밋밋한 산길을 경동경동 싱겁게 달려왔다.

오늘 다시 산을 오를 준비를 한다. 산은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듯해도 언제나 변신하는 모습이기에 아름답다. 그리고 말없이 들려준다. 산으로 가는 길은 모든 번민을 떨쳐 버리고 삶의 벽찬 환희를 불어넣는 비단길임을.